

참선 힘드세요? '서장' 읽으세요

"공부가 잘 안됩니다. 참선 수행이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화두를 붙잡고 앉은 지는 오래 되었는데, 항상 온갖 번뇌 망상이 떠오른다고요. 공부에 진척이 없어 참선 수행을 그만두려는 분들, 혹은 중단했던 참선 수행에 다시 도전장을 내리는 분들. 그렇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책이냐고요? 바로 <서장 공부>입니다. 혹 불자가 아니더라도 종교를 초월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줄 그런 힘을 지닌 책입니다."

<서장 공부>는 제목 그대로 동국대와 부산대에서 철학을 전공한 김태완 박사가 쓴 <서장>에 대한 공부 책이다. <서장>에 실린 62편의 편지 가운데 49편을 선정하고, 편지의 가르침에 해설을 더했다.

<서장>은 대혜 종고(大慧宗杲, 1089~1163) 스님이 그 문하에서 공부하던 거사와 유학자들의 질문에 답하여 쓴 <禪의 요지>의 요지를 설명한 편지글을 모은 것이다. <대혜서> <대혜보각산사서>라고도 불린다. 임제종 양기파에 속하는 중국 남송 시대의 스님인 대혜 선사는 목조선(默照禪)을 배격하고 간화선(看話禪)을 제창했기 때문에, 간화선의 전통을 이은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간화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대표적인 선법(禪法)이다.

'서장공부'

김태완 지음
여시아문 / 8천원



우선 조사선과 간화선을 본질을 잘 밝히고 있으며, 선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정확한 대답과 그 공부에 대한 지도가 매우 구체적이고 친절하다. 또 옳지 않은 견해와 잘못된 견해의 여러 사례를 열거하여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동시에 올바른 견해와 공부의 길을 보여준다.

교계 안팎에서 간화선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이 책은, 간화선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서장>의 가르침을 철저히 파고들어 예나 지금이나 참선 공부하는 이들이 부딪혔던 문제들을 꼼꼼하게 짚어 지혜로운 수행의 지침을 내려주기에 충분하다.

"참된 공부인이라면 진실한 자기 자신이 무상(無常)한 의식의 바탕이 되는 바로 이 유무이한 모양

거사·유학자 질문에 답한 禪의 요지 62편 가운데 49편 뽑아 해설 곁들여

간화선이란 화두 삼키는 것을 공부로 삼는 선 수행을 이르는 말이다. 화두(話頭)는 공안(公案)이라고도 하며, 주로 선 사들이 문답한 일화 가운데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말이나 행위를 문제로 삼는 것이다. 대혜 선사는 바로 <서장>에서 자성을 깨달아 선문(禪門)에 들어가는 새로운 방법으로 간화(看話), 즉 화두(話頭)를 이야기 하고 있다.

없는 마음임을 알아야 한다. 참선 공부란 곧 모양 없는 이 마음이 진실한 자기 자신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확인이 진실로 분명하여 달리 의지할 만한 물건도 없을 때, 늙고 병들어 죽는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서장 공부>를 빗살아 참된 공부인의 길을 걸어 보자.

이은자 기자 elee@buddhania.com

"미래의 불교역할 무엇일까?"

'역사 속의 한국 불교' 펴낸 역사학자 이이화 씨



"한국사 속의 불교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불교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안

과거 반성·내일을 준비하는 자료 되길 기록불교 청산·비구니 지위 향상돼야

타카움으로 글을 썼습니다."

우리 역사 대중화에 앞장서온 역사학자 이이화 씨(65, 사진)가 한국불교의 역사적 실체와 역할을 살펴보는 책 <역사 속의 한국불교>(역사비평사)를 펴냈다. 그는 "사상사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불교가 우리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살핀 특별한 작업"이라고 출간의의를 밝혔다.

12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불교의 전

래에서부터 삼국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불교정치술, 불교문화가 꽃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불교 이단 논쟁과 불교정책의 변화, 호국불교와 민중불교, 임진왜란을 겪으며 변화된 불교의 위상, 해방 이후의 불교교단의 활동과 분쟁까지가 통사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작업은 단순히 '역사의 기록'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4세기 후반 이 땅에 전해진 이래 불교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보다 지나치게 세속의 길을 걸어 때로 시대정신을 외면하거나 천박한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 그는 이 책이 과거를 반성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이기를 바란다.

과거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불교가 미래의 주도자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록불교 청산'과 '비구니와 신도의 지위 향상', '과도한 불사 지양'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불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불교는 평화, 평등, 인권의 종교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민족, 지역, 종교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고, 과학·물질문명의 범람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정신·생활문화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불교는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을 통해 평화를 이끌어내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nia.com

새로나온 책 5권



내인의 부처님을 보라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이 펴낸 법문집이다. 평소 스님이 신도들과 법회라는 형식을 통해 만나서 함께 나누고 생각했던 것 가운데서 쉽고 마음에 와 닿는 것들만 가려 뽑은 것이다. 형식은 법문을 요약한 것이지만 내용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고민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여래, 8천원)



도설 지장경
한국불교법륜종 황도명스님이 펴낸 책이다. 자비의 화신인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널리 퍼기 위해 <지장경>을 쉬운 한글문체로 번역하여, 그림과 함께 실었다. 일반인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지장경 공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황도명스님은 이 책에 이어 <부모은중경> <아미타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도 이해하기 쉬운 한글문체와 그림을 더해 펴낼 예정이다.(법륜종문화사, 1만8천원)



마음고요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진행자로 유명한 비구니 정목 스님이 낸 에세이집이다. 현재 스님은 마음고요선방을 열어 종교를 초월해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며, 이른 어린이를 돕는 작은 사랑 운동을 펼치고 있다. 출가에서부터 지금까지 맺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모은 이 책에서 스님은, 본별심과 집착을 버릴 때 '마음이 고요한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학고재, 8천5백원)



치우천황
2002 월드컵 때 우리 나라 응원단 붉은 악마의 상징으로 알려진 치우천황의 모든 것을 담은 책이다. 월드컵 축구 4강과 붉은 악마·붉은 전백승의 치우천황·치우천황의 붓어 이후·중국에서 보는 치우천황과 착각들·붉은 명신 치우천황의 부활 등으로 구성했다. 치우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고준환 교수(경기대 법학부)가 썼다.(메트로, 1만원)



바보와 신사
이 책은 중앙일보에 근무하는 불자 김인현 씨가 만난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김씨는 조금만 달리 보면 그들은 세상의 억압된 굴레를 벗어난 진정한 자유인이란, 그들의 삶은 동정과 멸시, 편견이라는 우리의 잣대를 잠시 접고 바라보았을 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아이티, 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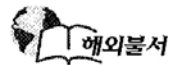
고려 불교사상 전반적 개관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이병욱 지음
혜안 / 1만 8천원

<고려시대 불교사상>은 한국 불교사에서 상대적으로 덜 체계화된 고려불교사상을 전반적으로 개관하고, 몇몇 사상가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한 책이다.

총 4부로 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통일신라에서 후삼국을 거쳐 고려로 이어지는 시대적 변화에 맞춘 불교사상계의 변화와 불교계의 중심인물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살펴본다. 2부에서는 순지(順之)와 의천(義天)의 사상에 대해 검토했으며, 3부에서는 보조국사 지눌과 원효국사 의세의 사상을 다루었다. 4부에서는 원나라 간섭기 이후의 불교사상에 대해 검토했는데, 운목부기가 고려 천태사상의 흐름을 집약시킨 인물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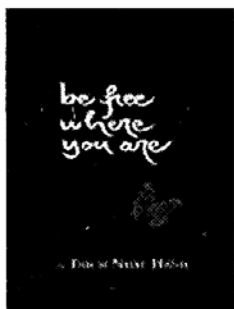


당신이 서있는 곳에서 자유로우라

수년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의 고승이 미국 교도소에 초청돼 재소자들을 상대로 법문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신이 서있는 곳에서 자유로우라(Be Free Where You Are)>는 탁남한 스님이 1999년 10월 16일, 헤이저스톤 메리랜드 교도소에서 미국 재소자들을 위해 첫 번째로 설한 법문을 기록한 책이다.

이 소책자는 미국의 명상가들이나 명상을 배우고 싶어하는 재소자들이 휴대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편집했다. 탁남한 Parallax출판사. 김재경 기자



스님의 설법을 들은 재소자들은 예전에도 여러 성직자로부터 교훈적인 강연을 많이 들었지만, 고승의 감화력과 자비함에 이끌려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설법을 경청했다.

교도소 법회장에서 펼쳐진 질문과 대답들은 어느 때보다 힘있는 대화들로 이루어졌으며, 스승과 제자간에는 어려운 이론과 불교용어가 난무하지도 않았다. 평이한 대화로 진행된 야단법석 그 자체로 살아있는 불교의 현상이었다. 탁남한 스님 지음, 미국 Parallax출판사. 김재경 기자

금주의 베스트셀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감산자전	감산 스님	여시아문
2	화	탁 남 한	명진출판사
3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일지 스님	민족사
4	마음꽃	경희 스님	고요아침
5	바로 이번 생애	우한 디미	불광출판사
6	쏟아지는 햇빛	아놀라 스님	정신세계사
7	나의 행자시절	박 원 자	다함미디어
8	아비달마구사론	권 오 민	동국역경원
9	이택교	성철 스님	김영사
10	달마 서양으로 가다	진 우 기	불교시대사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02)737-0695 / 팩스: 02)737-0696

삼천년 동양철학의 집대성!!



입과 눈같이 움직이는 것은 가로로 구멍이 나 있고, 코와 귀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세로로 구멍이 나있는 것은 어째서일까? 동물은 머리부터 태어나고 식물은 뿌리부터 나며, 동물은 오히려 가로로 자라고, 식물은 세로로 자라는 것은 왜일까?

같은 유씨가 세운 西漢과 東漢은 각각 12대나 갔는데, 蜀漢은 2대 밖에 못간 것은 왜일까?

하나라의 우임금은 리괘(履卦)를 만나 나라를 세웠고, 비괘(否卦)에 임금이 된 걸왕(桀王)은 나라를 빼앗긴 것은 왜일까?

황극경세 무덤 속에서 천년을 기다린 책



두가대 요응회 등은 무덤속에서 이 책을 얻어 앞날을 정확히 예견하였고, 정자 사마광 주자 등 최고의 석학들은 이 책을 철학적으로 귀하게 여겨 연구

하였으나, 그 심오함에 완전히 깨우치지 못하고, 그저 신비로운 글이라는 이름으로 비전되었던 책!

- 활용
- 129,600년의 역사책으로
- 성음올려의 음운학 책으로
- 64괘가 얻은 수리학으로
- 인체 각 기관의 의학책으로
- 역사와 어울어진 격률치지
- 주역의 패풀이 책으로
- 부록에 나오는 대로 대한민국 30년 대운을 미리 예견해도 좋고, 자신의 운을 미리 점쳐도 좋다.
- 성음올려편을 연구하여 배우자와 동지의 성씨를 알아보자.

추천의 글

- "동양삼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으로써 강철선생의 학문을 엿볼 수 있는 초석은 되리라" / 동방문화진흥회장 대신 김석진
- "현존하는 수많은 동양학관련 서적중에서 이처럼 다양한 철학적 접근을 총체적으로 집대성한 책이 드물었던 것을 상기하면, 사고의 깊이와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나, 도가풍의 의술을 지금의 의술에 접목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우리 한의사들이 꼭 한번 연구해 볼만한 책" / 경희대학교 교수 홍원식
- "*易*의 진수인 이 황극경세를 번역하여 우리 젊은 학계에 널리 알리는 이번 작업은 또한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쾌거" 한국주역학회 회장, 충남대학교 교수 남명진

전 3권(소,강,절) 2,500쪽 150,000원

대유학당
959-8385
www.daeyou.net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특별부록 황극경세 개인운세 CD